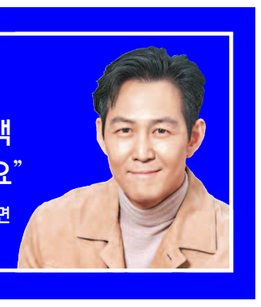
스포츠동아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sportsdonga.com 10판



영화 '사바하' 이정재의 고백
"방부제 외모? 액션 힘들어요"
▶ 12면



NC 다이노스 양의지가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서 열린 스프링캠프에서 타격훈련을 하고 있다. 양의지는 새 시즌 30홈런을 목표로 세웠다. 사진제공 | NC 다이노스



최익래 기자의 여기는 애리조나 | '125억의 사나이' 양·의·지

"구단의 4년 투자 우승으로 갚겠다"

가장 먼저 경기장 나와 포수·타격 맹훈련
"최대한 많은 투수들과 호흡, 하루가 빠듯
젊은 후배들 나에게 기대하는 것 많아
30홈런 목표…'공격형 포수'로 우승 견인"

곰의 탈을 썼던 여우는 이제 공룡으로 탈을 바꿨다. 과감히 4년을 투자한 구단에 보답하는 길은 단 하나, 우승이다.

지난해까지 양의지(32·NC 다이노스)의 별명은 '곰의 탈을 쓴 여우'였다. 큰 덩치에 무심한 듯한 표정은 곰을 연상시키지만, 포수 마스크를 쓰면 여우로 변신해 허를 찌르는 리드로 타자를 현혹하기 때문이다. 전 소속팀 두산 베어스의 상징과도 어울리는 별명이었다.

이번 겨울, 양의지는 공룡으로 탈바꿈했다. 4년 총액 125억 원 계약. 역대 프리에이전트(FA) 중 이대호(롯데 자이언츠·4년 150억 원)에 이은 두 번째 '대형 계약'이었다. 순수 KBO리거 중에는 양의지가 최고액이다. NC는 2017년까지 안방을 지킨 김태군의 경찰 야구단 입대로 포수난에 시달렸다. 결국 지난해 창단 첫 최하위의 굴욕을 맛봤다. 전에 없던, 당분간 없을 포수 최고 매물에 과감히 투자한 이유다. 18일(한국시간) NC의 스프링캠프지인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의 레이드파크에서 만난 양의지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 "훨씬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

스프링캠프에서 포수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다.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와 블로킹, 송구 등 포수 훈련을 실시한다. 이어 타격 훈련을 소화한 뒤 투수의 공도 받아야 한다. 선선한 투산의 날씨에도 포수들의 언더셔츠가 매일 땀에 흠뻑 젖는 이유다.

양의지도 마찬가지다. 포수조 최고참으로서 파이팅을 불어넣은 뒤 타격 훈련을 진행한다. 지난해 133경기에서 타율 0.358, 23홈런, 77타점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썼던 흐름을 반드시 잇겠다는 각오다. 이어 투수들의 공을 받는다. 처음 호흡을 맞추는 선수들의 장단점을 전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가 모자라다. 양의지는 "이 시기에는 최대한 많은 투수의 공을 받아야 한다.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매일 젊은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18일은 이민호의 불펜피칭 파트너로 나섰다. "어깨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가도 좋은 공이 들어오면 "볼 끝이 살벌하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입단 때부터 뛰었던 두산을 떠났지만 새 팀 적응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 않았다. 양의지는 "용덕한 코치님, 이호준 코치님 등 친한 코치님이 많아서 잘 챙겨주신다. 이동욱 감독님도 선수들과 소통에 적극적이다"라며 "아직 적응 중이지만 분위기는 좋다"고 설명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투산(미 애리조나주) | ing17@donga.com

이강인 5경기 연속 결장…발렌시아 감독은 왜?

"우리 팀 17세 선수 연달아 뛸 수준 아냐"
확신 없다는 뉘앙스…결장 더 길어질 듯

이강인(18·발렌시아)의 결장이 길어지고 있다. 벌써 5경기째 벤치 신세다.

이강인은 18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캄프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2018~2019 프리메라리가 에스파뇰과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강인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끝내 부름을 받지 못했다. 경기는 득점 없이 비겼고, 발렌시아는 6승14무4패(승점 32)로 8위를 기록했다.

이강인은 지난달까지는 희망에 부풀었다. 지난해 10월 스페인 코파 델 레이(국왕컵) 에브로와 32강전에서 만 17세 327일의 나이로 유럽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는 유럽 빅 리그 무대를 밟은 한국인 최연소일 뿐 아니라 발렌시아에서도 최연소 리그 데뷔전이었다. 이후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리자 기대감은 더욱 커졌고, 지난달에는 공식적으로 1군에 등록도 했다.



이강인

하지만 공교롭게도 1군에 오른 이후 오히려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입지가 줄어든 탓이다.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도 이강인 카드를 외면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이강인의 결장에 대해 "우리 팀은 17세의 선수가 연달아 경기에 나설만한 수준은 아니다. 만약 그가 뛸 자격이 있다면 언제든지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강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는 뉘앙스다.

이강인을 보기 위해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이 최근 스페인 현지를 찾았지만 헛걸음 했다. 주전 경쟁에서 밀린 이강인이 구단에 임대를 요청했다는 스페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현 추세라면 그의 결장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허민 키움 이사회 의장이 해외전훈 '청백전'에 뛴 사연 ▶ 2면
역대 최고를 향해 가는 이정후·강백호의 힘 ▶ 6면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02559호(2018.06.12) 〈COM-2018-06-28146〉



암이 완치된 지금
(최근 5년이내 제외)
칠순이 넘은 지금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사는 지금
암재발이 걱정되는 지금
혈압약 먹는 지금
암보험 하나없는 지금

지금이 암보험 가입하기 딱 좋은 때! (간편심사 통과시)

무배당 (갱신형)
꼭 필요한 암보험Ⅲ

암보험 가입하기 딱 좋은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오방난로 상담완료 시, 무료증정!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단,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 (가입 2년 이내 50%)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이므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당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AIA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